

*Learning Together: An Asian American Perspective On Racial Justice and Reconciliation*

함께 배워가기: 인종 정의와 화해에 관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관점

CLARK FOBES AND KEVIN YI | JUNE 12, 2020

As our country takes a hard look in the mirror and acknowledges a long history of racial prejudice and injustice, we at Rooted want to observe things from every angle and every viewpoint. In this interview we've invited our friends **Kevin Yi** and **Clark Fobes** to speak with us about racism against Asian-Americans during the Covid-19 crisis, complicated issues of discrimination within the Asian-American community, and how racism particularly impacts teenagers.

우리나라가 인종적 편견과 불의의 오랜 역사를, 거울을 통해 냉철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Rooted의 우리 모두 모든 각도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친구인 **Kevin Yi**와 **Clark Fobes**를 초대해서 코로나 기간 있었던 아시아계 미국인들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과 아시아계 미국 커뮤니티 안의 복잡한 차별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이 특히 십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ROOTED:** How does discrimination play out differently for Asian-Americans?

**Rooted:**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차별은 어떻게 다르게 일어났나요?

**Clark:** Most Asian minors are raised to respect elders and authority figures, to keep to themselves, and to wait passively before talking or acting, in respect for those around them. This means that when they do experience racism, they tend to quietly submit until the racist act has passed, and likely will not speak of it after the fact. While racism towards Asians seems heightened today, it is only because the media has a greater eye on it due to the Covid pandemic. Racism towards Asians has always been around; we just haven't been as outspoken about it ourselves due to our cultural upbringing of respect and passivity.

**Clark:** 대부분의 아시아계 미성년자는 주위 사람에게 있어서, 연장자와 권위자를 존중하고,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간직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도록 배우며 자랍니다. 이는 이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할 때 인종차별적 행위가 끝나길 기다리거나 후에 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이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디어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항상 있었고 존중과 수동성의 문화에서 자란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Kevin: What Clark is saying is really important. When I was a teenager, race relations in Los Angeles were terrible leading up to and after the '92 Riots. I was bullied by Black and Latino students throughou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nd the way I dealt with it was to talk to my Asian friends afterwards and vent. But it was never brought to school authorities or brought up to parents. We did our best to ignore it in the moment, and only process it through an afterschool venting session or over a landline phone call. But now, those venting sessions are happening online. Asian students are posting angry and blatantly racial things towards people who have been giving them a tough time for being Asian during COVID-19 pandemic. Hate and racism are breeding more hate and racism, but it's not in private conversations, it's all happening online. This is a huge concern right now because we need safe places to be able to talk about these kinds of things and process through the racism we're receiving, while dealing with the racism that's brewing in our own hearts. Right now our teenagers need us to lead them and help them through these discussions, by providing safe and honest spaces for them to be able to share, grieve, and repent.

Kevin: Clark가 말한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십 대였을 때, 로스앤젤레스의 일종 문제는 92년 폭동 전후로 끔찍했어요.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내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양계 친구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학교 관계자나 부모님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던 최선은 당시에는 무시하고 방과 후 친구들과 모임에서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하며 분통을 터트리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감정의 표출이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아시아계 학생들은 코로나 팬데믹 동안 자신에게 인종차별적으로 힘든 시간을 준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며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게시를 하고 있어요. 증오와 인종차별이 더욱 큰 증오와 인종차별을 불러온 거예요. 하지만 이 모두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인종차별이 자라고 있고, 우리가 받는 인종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의 십대들은 이런 토론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직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끌고 도와줘야 해요.

ROOTED: What are red flags for youth ministers to look for in their ministries? How might youth ministry be a place where we speak into racism right now?

Rooted: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찾아야 할 위험 신호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사역이 어떻게 지금 인종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Clark: As mentioned above, due to the complicit demeanor of Asians out of honor and respect, we are often overlooked and unheard because we feel we cannot speak up for ourselves. Youth Ministers need to understand that passivity, silence, or a submissive demeanor do not mean Asian students are okay. Likely it means they are waiting for

permission to speak up, share their opinion, and have their voices heard. Youth Ministry can help Asians feel safer to talk about racism, or even to share their opinions in general, by inviting them into conversation, rather than simply waiting for them to join a conversation that is so often dominated and controlled by the White majority.

**Clark:**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시아인들의 명예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모하는 듯한 태도로 인해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느끼고, 우리는 종종 간과되고 무시당해요. 청소년 사역자는 이러한 수동성, 침묵, 순종적 태도가 아시아계 학생들이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는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청소년 사역은 단순히 백인 다수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대화 속에서 단순히 참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아시아인들을 초대하고 동양인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전반적으로 그들만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Kevin:** Even in a majority Asian-American youth ministry, this is not an easy thing to do. Our students are very tuned into what is politically correct, so it takes a while to create a place that's safe enough for everyone to speak honestly about what is happening. There's real hurt that we have to make space for, and there are real questions that we have to be honest about with regards to what forgiveness looks like. Without asking and creating a space where we're willing to engage, it's always going to be easier for Asian-American students to simply brush it under the rug or vent in more dangerous places (like online).

**Kevin:** 다수가 아시아계 미국인인 청소년 사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정치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야 할 진짜 상처가 있고 용서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솔직해야 하는 현실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가 참여하길 바라는 공간에 대한 질문 없이 이런 공간 없이는 아시아계 미국 학생들은 단순히 속에 묻어두거나 더 위험한 장소(온라인 같은)에 표출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ROOTED:** Let's talk about the specific heart issue behind racism and discrimination, specific to Covid...

**Rooted:** 코로나로 조명을 받은 인종차별과 차별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핵심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Clark: While we obviously must be aware of how sin and the Fall have marred the image of God — down to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such as race — we must also be willing to identify the specific ways sin has affected our dispositions towards people of specific colors. Understanding the cultural and historical factors that have led us to this point can uncover the unknown or hidden racism in our hearts, and correct us on the image of God, not just generally, but specifically.

Clark: 우리는 죄와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훼손했는지-인종과 같은 근본적인 특성에 이르기까지-분명히 인식해야 하지만, 또한 죄가 어떻게 특정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알기를 원해야 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요인을 이해하면 우리 마음속에 모르고 있었거나 숨겨져 있던 인종 차별을 발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일반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acism towards Asians is not the same as racism towards Blacks and Browns. While our Black and Brown brothers and sisters have been looked at as inferior beings throughout our nation's history, Asians seem to be more accepted socially. However, this acceptance is conditioned upon our ability to adhere to society's expectations and stereotypes of Asians (passive, submissive, hard working, unassuming, etc.). While Asians seem to be marginally accepted in society due to being the "model minority," the pandemic has reminded us that we still do not fully belong unless we submit.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흑인이나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인종차별과는 달라요. 흑인과 어두운 피부를 가진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아시아인들은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이러한 수용은 사회의 기대와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관념(수동적, 복종적, 근면함, 겸손함 등)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에 한해서 이뤄진 것이에요. 아시아인들이 "모범적 소수민족"이라는 점이 사회에서 겨우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 사회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어요.

The heart issue behind this sort of racism is that Asians must stay in their lane in order to belong. Though Asians are seen as valuable to society for their industrious work ethic and intelligence, they are often barred from positions of leadership and power.

이런 종류의 인종차별 뒤의 핵심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사회에 소속되기 위해서 정해진 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시아인이 부지런한 직업윤리와 지성으로 사회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리더쉽과 권력의 위치에서는 대부분 제외되곤 해요.

Kevin: I think one of the key heart issues involved in racism is this: sin is inherently antisocial (Paul Tripp). When Adam and Eve sinned against God, they didn't run to him, they hid from him. When Cain's sacrifice was unacceptable before the Lord, but Abel's was, Cain didn't run to Abel for help on how to do it better next time, Cain killed Abel in jealousy. Sin is why people dehumanize each other so quickly in times like this. When the threat of the coronavirus started to loom over the US, and people started to look for a scapegoat, it became all too easy for the sin of racism to be unleashed. Rather than seeing Asians as people deeply affected by Covid-19, there was a rush to dehumanize and assign blame. Asians and Asian-Americans became objects of scorn and ridicule so quickly that it was a shock to many of us who thought that we had done the work of allowing ourselves to be isolated from this kind of response. But it's clear that this issue is deeper than that, and there is much work that needs to be done at a heart level to address the sins that so easily dehumanize.

Kevin: 인종차별과 관련된 주요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죄가 본질적으로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Paul Tripp)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졌을 때 가인을 아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다음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고 질투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죄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빠르게 서로를 비인간화시키는 원인이예요. 코로나의 위협이 미국을 덮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을 때 인종차별의 죄가 풀리기가 너무 쉬웠어요.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은 그룹으로 아시아인들을 보지 않고 비인간화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어요.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은 정말 빠르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런 대응에서 스스로를 멀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훨씬 깊고 너무 쉽게 비인간화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마음에서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ROOTED: How can we better identify the racism that exists in our own hearts?

Rooted: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Clark: Practically speaking, we must ask if we are placing societal stereotypes of race onto certain groups, and why it is we hold to those stereotypes. Are we afraid of Black people when we walk down the street? Are we surprised when we see Asians in forefront positions of leadership and influence? Answering these simple questions can help us be aware of racism that exists inwardly, even if we outwardly do not condone extreme or violent acts of racism.

**Clark:**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인종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졌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해요. 길을 걸을 때 흑인이 두려운가요? 리더쉽과 영향력의 선두에 있는 아시아인을 보는 것이 놀라운가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인종차별을 겉으로 용서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When I talk with people of all races — not just White majority — I like to ask if they've ever been in a circumstance where they were the minority, and what that experience was like. Have you ever walked into a community where you were the vast racial minority? What was it like to have heads turn and give you confused, or even condescending looks? Many Whites can go their whole lives never experiencing this discomfort of simply walking down the street, hiding behind the veil White privilege covers them with. Have you ever interacted in a group of people where you were the racial or cultural outsider? What defenses, prejudices, or assumptions crept to the surface as you were quickly identified as the "other"? Many Asians can go their whole lives aware of their lack of privilege having Asian faces, yet may never venture out of their cultural comfort zone to interact with the racial "other." Though they may be more acutely aware of the racism they receive, they may be completely unaware of the racism that broods in their own hearts through this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racial distancing.

대다수 백인뿐 아니라 모든 인종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흑시 소수자의 상황에 부닥쳐봤거나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엄청난 인종적 소수인 그룹에 가본 적이 있나요? 당신을 보고 고개를 돌리거나 당황한 표정, 심지어 내려보는 듯한 표정을 보는 것은 어땠나요? 대다수 백인은 그들을 덮고 있는 백인 특권의 위에 숨어서, 길을 가다가 겪는 불편함 등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외부인이었던 그룹에서 교류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빠르게 구별되었는데 어떤 방어 태세나 편견 혹은 추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나요? 많은 아시아인은 아시아인의 얼굴을 갖고 있음으로 인한 특권의 결핍을 평생 알면서도 문화적 안전지대에서 나와 다른 인종적 "타인"과 교류하지 않아요. 스스로 받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 인종적 거리두기를 통해 자기 마음 속에 자리잡은 인종차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t will also help us if we recognize that racism is a complex issue, and that both Whites and POC have been complicit in racism. Asians have often been at the receiving end of racism not only by Whites, but also from Blacks. Even Asians are prone to racism, especially if they have grown up in strong cultural communities that have been impenetrable to outside cultures. Growing up in San Francisco, I was often the only White face in my social circles. Though I am half-Asian, I experienced my share of

ridicule and racial slurs simply for being different, “Other.” It is a false belief to think that racism is simply a “White problem,” and that all People of Color are absolved of the heart work the Spirit must do on us to expose our prejudice towards the “other.” While POC experience racism on a much deeper level than Whites in our nation, both sides must be willing to admit how sin has affected our hearts in the matter if we hope for true racial reconciliation.

인종차별이 매우 복잡한 문제라는 것과 백색과 유색인종 모두 인종차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인은 백인 뿐 아니라 흑인에게서도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시아인조차도 외부 문화가 들어오기 힘든 문화적 요소가 강한 커뮤니티에서 자란 경우 아시아인조차도 인종차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라면서 저는 사회관계에서 유일하게 백인이었어요. 제가 받은 아시아인이지만 단순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애”라는 조롱과 인종적인 비방을 경험했어요. 인종차별이 단순히 “백인의 문제”이고 모든 유색인종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님이 하실 마음의 역사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색인종은 백인에 비교해서 훨씬 깊은 수준의 인종차별을 경험하지만 진정한 인종적 화해를 원한다면 양쪽 모두 죄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정해야 해요.

Kevin: Clark is spot on. I have racism in my own heart that needs to be expunged by the Holy Spirit. My own racism comes from dealing with the pain and suffering as the Black community looted and rioted across Koreatown during the '92 LA Riots. It was a painful and frightening time, and I still think I have some fearful impulses when it comes to the Black and Latino communities in the inner city. But what good does harboring this bitterness do? What victory is won by withholding love from those who are different from me? Doesn't holding onto pain and hurt in this way only continue my misery and prevent me from receiving the healing that flows from the blood of Christ? I've had to do much self-examination during the last few weeks, and there is much that I have been repenting of. The Lord has been confronting me with so much ugliness, and as hard as it is to see that which is in me, it has freed me up to begin to move in the right direction. I'm no longer willingly blind to my own biases and shortcomings, but rather, through a new gospel lens, I am seeing the opportunities that are present for me to be engaged in this conversation towards actual reconciliation.

Kevin: Clark가 제대로 문제를 짚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지워주셔야 하는 인종차별이 있어요. 92년 LA 폭동 당시에 한인 타운 전역에서 일어났던 흑인들의 약탈과 폭동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고 여기에서 인종차별이 시작되었어요.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고, 여전히 도심의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쓰라림을 감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어떤 승리가 있을까요? 고통과 상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제 불행이

지속되게 하고 그리스도 보혈로 흐르는 치유를 받지 못하게 할 뿐 아닌가요? 지난 몇 주간 많은 자기 성찰을 하였고, 많은 회개의 시간을 보냈어요. 주님은 제 안에 많은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기 힘들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는 더 이상 저의 편견과 결점에 대해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의 렌즈를 통해 실질적인 화해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보고 있어요.

**ROOTED: What do you want non-Asian Americans to know?**

**Rooted:** 아시아계 미국인이 아닌 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Clark:** I would love for Asian-Americans to feel affirmed in their gifts, talents, and contributions beyond just their money and brains. I want to see more Asians stepping into positions of leadership and influence; but that will require a cultural shift for us, to have people in our corners championing us, giving us the affirmation we so often lacked as children, and telling us we do belong in society beyond just our own cultural ghettos. White leaders and authorities — especially in the Church — have a unique responsibility to not only invite Asians to the table, but to willingly pass off their leadership and influence to POC and learn from them and the insights they have gained as people on the fringes.

**Clark:** 저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돈과 능력을 떠나서 그들의 재능, 소질, 기여를 인정받는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아시아인이 리더쉽과 영향력의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옹호하고, 어려서 받지 못한 확신을 주고, 우리의 문화적 빈민가를 넘어선 사회에 속해 있다고 말해주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해요. 백인 지도자와 권위자들, 특히 교회 안에서, 아시아인들은 같은 자리에 초대할 뿐 아니라 유색인종에게 리더쉽과 영향력을 기꺼이 내어주고 변두리의 사람으로 얻은 통찰력을 배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Going beyond our cultural comfort zones to have conversations and pursue racial reconciliation also requires us as Asian-Americans to identify the idols in our own hearts which the Gospel must tear down. Is our own self-doubt, fear, and sense of worthlessness preventing us from coming to the table for conversation? We must allow the Gospel to correct the understanding many of us are brought up with, that we are only as valuable as the dollar amount we make or the vocational status we obtain; we are valued simply by being in Christ. If we are indwelt with the Spirit, and we have an obligation to our brothers — even those racially not like us — then we have a responsibility to speak up, and not only when called upon. We must be aware of how our own prejudice prevents us from lovingly interacting with those unlike us, and ask

how we can befriend and be in conversation with brothers and sisters from across the racial table.

인종적 화해를 위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넘어서는 것은 복음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할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구별해야 해요. 우리 자신의 의심, 두려움,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대화의 자리에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우리가 쌓아온 커리어나 버는 금액의 가치만큼만 가치 있다는 자라면서 형성된 이해를 바로잡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인종적으로 다른 형제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을 때뿐 아니라 소리높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의 편견은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교류하는 것을 방해하며 인종차별을 넘어서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Kevin: Yes and amen to all of that. On a personal and practical level, I think asking us about our stories and asking us about how we've been doing is really important. In light of the recent deaths of George Floyd, Breonna Taylor, and Ahmaud Arbery, I've been far more connected with the various minorities in our local community, and there is a neighborly love that is growing because we're willing to check in and have conversations about how we're doing. This invitation into processing with one another has been encouraging, but more than that, it's been an opportunity for co-discipleship under the banner of racial reconciliation. So approaching conversations with more questions than statements is always a good way to engage in relationship building.

Kevin: 맞아요. 하신 말씀에 모두 아멘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물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George Floyd, Breonna Taylor나 Ahmaud Arbery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소수민족들과 연결되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안부를 묻고 확인하려는 것이 많아져서 이웃사랑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이들과 교류하기 위한 초대는 큰 힘이 되지만 그뿐 아니라 인종 간의 화해라는 현수막 아래 함께 훈련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주장보다는 질문으로 대화에 접근하는 것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더욱 좋은 방법이에요.

A second practical suggestion I would have is to do some real cultural learning. Ask the Asian Americans in your church or your youth group to think about some cultural activity that can be done together. For example, sharing an authentic Asian meal, watching a "foreign" film together (with subtitles), listening to music (or watching a music video) and then talking about it. Celebrating and being interested in Asian cultures is a way for Asians to be proud of their cultural heritage, and if you ask about it first, it's also less uncomfortable for us because "showing off" is not considered to be a cultural priority. This kind of activity can be a fun way to build off of conversations.

두번째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은 실제 문화 학습이에요. 교회나 중고등부의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예를 들면 전통 아시아 음식을 함께 나눈다던지 “외국” 영화를 (자막과 함께) 함께 보고, 음악(혹은 뮤직비디오를 보기)을 함께 듣고 이야기해 보는 것 등이 있어요. 아시아 문화를 기리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시아인에게는 문화적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먼저 물어봐 준다면 “과시”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는 우리에게 덜 불편할 거예요. 이런 활동은 대화를 만들어가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Check back on the Rooted blog Monday for a new episode of the Rooted Youth Ministry Podcast, where Kevin and Clark expound more on these issues with host, Davis Lacey.*

*Rooted* 청소년 사역의 팟캐스트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확인하려면 *Kevin*과 *Clark*가 사회자 *David Lacey*와 함께 관련 주제등을 다루는 *Rooted*의 월요일 블로그를 다시 찾아주세요.

## **CLARK FOBES AND KEVIN YI**

Clark currently serves as the worship and college pastor at Sunset Church in San Francisco. Before that he served as a youth pastor in the Asian-American context for nearly 10 years. He received his M.Div. from Talbot Theological School in Southern California, and is a Doctor of Missiology (D.Miss) candidate at Southern Seminary (SBTS). He is also an emeritus member of Rooted’s Steering Committee. He and his wife, Janet, have one daughter, and are committed to ministering amongst the least reached in San Francisco and East Asia. Kevin Yi is the college and young adults pastor at Church Everyday in Northridge, CA and has been serving youth students for over 16 years. He was a bi-vocational pastor for most of this time and has been in the animation industry for over 13 years. He is the founder of truthmattersministries.com. He and his wife Tracy are celebrating thirteen years of marriage together and have three children: Caden, Isabella, and Ian. He is currently pursuing a Master of Arts in Theology at Talbot Theological Seminary.

Clark는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Sunset Church**에서 예배와 대학부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아시아계 미국 환경에서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 담당 목사로 섬겼습니다. 남가주의 탈봇 신학교에서 목회학을 받았고 남부침례신학교(SBTS)에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ooted** 운영 위원회의 명예 멤버이기도 하며 아내인 **Janet**과의 사이에서 딸을 키우며 샌프란시스코와 동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Kevin Yi**는 캘리포니아의 **Northridge**에 위치한 **Church Everyday**의 청년 대학부 담당 목사로 16년 넘게 섬겨왔습니다. 현재 이중 직업 목사로 13년 넘게 애니메이션 업계에



종사해 왔고 [truthmattersministries.com](http://truthmattersministries.com)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Kevin과 아내 Tracey는 결혼 13주년을 기념하며 Caden, Isabella와 Ian,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현재 탈봇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